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경영성과 거뒀다

전북개발공사, 부채비율 200% 이내 진입... 경영 안전 청신호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진입하는 등 공사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결과' 공사 창립 이래 최고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또한 부채비율도 전년도 보다 80% 감소한 195.7%로 부채비율도 200% 이내로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공사의 2016년 결산 결과를 보면, 매출액 1,998억원, 당기순이익은 238억원이다.

부채비율도 전년도 276%에서 8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말

까지 230%이내로 감축토록 한 행정자치부 부채감축 목표를 1년 빨리 달성하게 됐다.

공사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민성지구 택지 분양 등 호조에 따른 것이다.

부채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무분석 및 경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민성지구 공사채 400억원을 상환하고, 모항 관광진흥개발기금 46억원 및 임대주택관련 주택도시기금 386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금융부채 83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공사의 총부채 중 이자가 발생하

는 금융부채는 26.9% 수준에 불과해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사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 이전 3본부 체제에서 1본부 체제로 조직을 통합했다.

아울러 인사총무와 보상판매 업무를 경영관리 분야로 단일화하고, 임대주택 시공부서와 관리부서를 통합, 시공·관리·하자보수 업무를 일원화해 고객 민원대응에도 한걸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0대 현안 추진계획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삼라능정 및 토탈관광

등 도정정책과 발을 맞추는 신규사업은 무주·진안지역에 농어촌임대주택 추가 건립과 군산 고군산군도 개발사업 참여가 가시화 되고 있고, 도시재생 연계형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검토 하는 등 사업다각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재찬 사장은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2016년에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등급을 받게 됐다"면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협력을 검토 하는 등 사업다각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재찬 사장은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2016년에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등급을 받게 됐다"면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협력을 검토 하는 등 사업다각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백 전주점, 봄 정기세일

내달 16일까지... 남녀패션·잡화·리빙 상품 등

2017년 새봄,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LOTTE Grand Festa'로 명명된 이번 정기 세일은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No.1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사은선물과 경품, 다양한 상품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롯데월드타워의 층수(123층)에 맞춰 총 1만2300명에게 월드타워 개장기념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1등 5명에게는 월드타워 76~101층에 들어서는 호텔 '시그니엘 서

울'의 로얄 스위트룸 1박 숙박권과 쇼핑지원금 2,000만원을 증정한다.

이번 정기 SALE은 남녀패션, 잡화, 리빙 상품군에서 10~30% 할인 행사를 비롯해 그룹창립 50주년을 기념한 5만원·50만원 균일가, 특별기획 상품전, 단하루 (3월 30일) 실속가득 Lucky Bag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또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No.1 아웃도어대전과 와인애호가들을 위한 와인박람회, 가전·가구·홈패션 봄맞이 초대전 등 다양한 상품행사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인재용 기자

저축은행업계 대부업체 맞먹는 법정 최고금리 '육박'

금감원 "대출금리 관련 세부기준 마련키로"

저축은행업계가 대부업체에 맞먹는 높은 대출금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살인적 대출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다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매기는 '물지마' 대출 행태도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불합리한 금리운용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면서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9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사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35개 저축은행 가운데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OSB저축은행으로 연 27.20%에 달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27.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조은(26.89%), 세종(26.83%), 공평(26.80%), 스타(26.37%), H K(26.27%), 현대(26.26%), 모아(26.24%), OK(25.55%) 등의 순으로 평균금리가 높았다.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연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총 25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금전이 필요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3~4배 이상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셈이다.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영업관행도 여전한 상황이다.

조은(24.33%), 현대(23.74%), 모아(22.78%), 머스트샵(22.25%), 세종(22.39%), 공평(21.63%) 등은 신용등급 1~3등급의 평균금리가 연 2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상호저축은행감독부 시행세칙을 바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금리 산정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고신용자에 게도 연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는 커녕 고금리 대출장사에 집중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중 가

계신용대출이 많은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인 금리 산정을 하지 않도록 조만간 대출금리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현장검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형식적인 금리산정체계를 운영하고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부합하는 적정한 금리를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남원시 고죽동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전북은행은 29일 남원시 고죽동에 위치한 황죽작은도서관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54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 김병조 익산지역금융센터장, 소민호 남원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남원시 이환주 시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황죽작은도서관은 2014년 2월 개관 이후 어린이 열람 공간, 각종 자료 검색 공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점차 난방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아동들이 도서관을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바다난방, 장판, 좌식책상, 바다매트, 화이트보드 등을 새롭게 지원해 연중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하며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했다.

이정영 부행장은 "개선된 환경에서 아동들이 항상 책을 읽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향토기업으로서 미래의 지역인재로 성장할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역 공헌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신임 손성덕 기계설비건설 전북도회 회장 선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9일에 호텔 르윈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에 손성덕 건설산업(주)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손성덕 신임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손 신임회장은 "그동안 소외됐던 기계설비산업계가 전북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직접발주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회원사 권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발주불량확대, 하도급공사 수익성 향상 및 산학협력을 통해 법정

현장대리인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계설비인의 교류·화합·협력 증진을 통해 회원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회가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 회장은 전북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20여년 간 건설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운영위원, 부회장을 역임 하면서 회원들간의 소통역활을 해왔다.

/인재용 기자

LH 전북본부, 국가식품클러스터 단독주택용지 공급

LH 전북본부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내 단독주택지 32필지(1만㎡)를 30일 공고를 통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하는 단독주택지가 속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식품 전문 국가산단으로 수도권 등 전국 주요지역과 2~3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호남고속도로와 익산-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IC와 2km이내 이머 KTX 교통망 및 수출을 위한 군산항은 50km이내에 있어 산업단지 접근성

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R&D 중심의 수출지향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청은 추첨방식으로 진행되고 1인 1필지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지역 제한을 뒤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전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에 한해 4월 18일 접수받고, 미신청 필지에 한해서만 2순위로 지역 제한없이 4월 19일 신청을 받는다. 추첨은 4.19일 진행되고 계약은 LH 전북본부에서 체결한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직업체험의 날 행사

전북조달청은 29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17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채용박람회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에게 도내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생생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하

고자 마련했으며, 익산에 소재한 (주)동원프라스틱, (주)성호철관의 생산시설 등 현장을 견학했다.

임중식 청장은 "학생들에게 제조현장의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됐다"면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